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20'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켄스님 한글 번역



티벳 학승 초켄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초심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한국 실정에 맞게 편역했다. 특히 이 책은 우리불교사에서 처음으로 티벳스님이 그들의 성전을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보리도차제)는 티벳에서 제2의 부처로 추앙받는 풍카빠 대사(1357~1419)의 대표적인 저술로, 석가 세존으로부터 용수와 무착으로 이어진 대승불교의 전통을 설명하고 초발심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해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 경전을 명상하듯 읽으면 바람직한 생활규범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티벳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구하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진짜 재산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티벳 사람들을 가난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부처님께 신심없는 사람들만 그들은 깨달음 자체 보다는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기초수행을 강조한다. 서구에서 불교에 대한 불교 바람을 티벳불교가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20' 생활불교 첫 번째 권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바로 깨달음의 궁극보다는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한 책. 티벳불교 대표 종단인 겔룩파의 성전 <보리도차제·善提

"당신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보리도차제'의 유래 가르침을 듣는 방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 등 수행의 요점 간추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초켄스님은 말한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보리도차제>의 유래 <보리도차제>를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가르침을 듣는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 등 총 4장에 걸쳐 진정한 생활불교란 곧 앎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책이 제시하는 요점은 <보리도차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있다. 그 요체는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을 밝힌 '삼사도(三士道)'이다. 수행의 처음 단계인 하사도(下士道)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력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원하는 법문을 담고 있다.

다만 티벳불교의 전설·설화 등은 읽기에 따라서는 낯선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티벳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철학이 우리와 닮음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오히려 이같은 상징들을 신비적 신앙행위로 낮추기 보다 그들의 원초적인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책은 분명 불교 신앙의 본질을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이번 출간에 앞서 현대불교신문은 152호(97. 11. 26)부터 156호(97. 12. 24)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초켄스님 번역 <보리도차제>를 간추려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한명우 기자

멋대로 부른 노래 정우스님 지음

진정한 삶의 모습 노래한 계승 모음집

멋대로 부른 노래



"제멋대로 부르는 노래에 무슨 형식이 있고 구색이 있겠는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지. 그래도 부처님 노래나 서너번 읊조려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산거지스님으로 알려진 정우스님(선경암 주지)이 펴낸 <멋대로 부른 노래>는 10여년간 사찰과 각종 신행단체 법회에서 설법할 때마다 한구절씩 읊었던 계승을 모은 책. 부처님 사상과 신행,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평화롭고 인정 넘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한글로 된 계승을 소개하고 쉽게 뜻을 이를 해놓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경서원, 4천원>

화제의 책

이빛교 이창 지음

큰스님들의 육성으로 듣는 선의 핵심



"세상에 태어난 깨달이 이것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선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 세상, 선불교의 전통을 지닌 세상에 태어난 인연이야말로 고마운 일이다." 선 속으로 들어가 있는 스님들은 선을 이렇게 말한다. <이빛교>는 위대한 선사들이 걸어왔던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 한국불교의 선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 선원에서 어떤 모습으로 참선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저자 이창씨가 전국 유명 선원을 방문해 성철 경봉 서암 진제 스님 등 입적했거나 생존해 있는 큰스님들과 선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육성을 통해 선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불교영성회보사,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2	불교입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3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4	가을을 적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을순	신우당
6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운출판사
7	선사들이 가려진 세상	신규탁	장경각
8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윤타	대원정사
9	명상체험여행	박석모	다산
10	밀교강좌	해정	출판시대

구입문의:(02)737-0695

유마경이야기 관음경이야기

마치 경전을 수필 읽듯...



민족사가 경전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다시보는 경전 시리즈 1·2권'인 <유마경 이야기>와 <관음경 이야기>를 펴냈다.

두 권 모두 경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 후 경전 전체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자구해석이 아닌 수필식 이야기 전개가 특징이다. 즉 이 경전이 어떤 경전이며, 지칭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하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누군가와 마주앉아 대화하듯 풀어나간다.

해원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이 쓴 <유마경 이야기>는 제1불국품에 제14축루 풀까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으로 경전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관음경 이야기>는 저자 동봉스님(우리절 주지)이 일상적 단편을 매개로 경전의 의미를 되새긴다.

해외신간

노상에서



1959년 이후 미국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불교소설은 단연 <노상에서(On the Road)>다. 잭 케로락(美)이 쓴 이 책은 주인공 살 파라다이스(Sal Paradise)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의 패러디이며, 당시 비트세대들은 파라다이스의 삶을 닮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Viking Pr 출판사 권. (p.p. 352, ISBN 0670874787)

선과 두뇌



<선과 두뇌(Zen and the Brain)>는 선 불교의 깨달음을 지속적의 정신생리학적 생리·화학작용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美 콜로라도대학 신경학 명예교수이며 참선 수행자인 제임스 H. 오스틴이 쓴 이 책은 '명상' '의식탐험' '전념(專念)' '깨달음' 등 총 8장으로 구성했으며 <반야심경>을 별첨해 놓았다. MIT 출판사 권. (p.p. 1056, ISBN 0262011646)

이기영박사 추모전집 둘째권

'다시쓰는 한국불교 유신론'

한국불교학계의 거봉으로 지난 96년 타계한 불연 이기영 박사, 불교에 대한 애정과 불법에 대한 투철한 신념, 학문에의 열정이 남달랐던 이박사의 추모전집 두번째 권이 나왔다.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엮은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한국불교연구원 권)은 '불교는 이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하고 불교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이박사의 신념을 그대로 담았다. 이박사의 불교관계 미간행 논설, 법문들 수백편 가운데 60편을 뽑아 엮었다.

'나는 오늘의 한국불교가 국내 외로부터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정법의 구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절타와 '참고 용서하며, 법의 본질을 따라 세상의 칭찬이나 욕설이나 필박에 동요되지 않고 바라달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등의 불자와 승단에 대한



애정어린 고언이 스며있다. '불교의 본질과 이상' '세간과 출세간' '불자의 길, 보살의 길'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제 아래 60여가지의 얘기들로 묶여져 있다.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된 <내 곁의 맑은 마음에 있나니>에 이은 '불연 이기영 전집'의 두 번째(제18집) 권으로, 한국불교연구원은 이기영 박사가 남긴 저서와 역서, 논문과 수필, 법문, 강의를 등 총망라해 순차적으로 34권을 펴낼 계획이다.

'불교예술' 창간호 나왔다



<불교예술> 창간호가 나왔다. 한국문화예술인법회(회장 김홍우·발행인)가 펴낸 <불교예술>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화인들의 예술 발표의 장으로 삼기 위한 문화예술인법회 회지로 1년에 1회에서 4회정도 발행된다.

이번 창간호는 '불경 속의 식물' (송홍선) 등 수필 및 기행문 6편과, 희곡 1편, 시 23편 등 문학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종불교 전통의례의 기원·역사'와 그 사상성(홍은식) 등 학술논문 3편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대장경 판각 주역은 일연스님"

김정학PD '일연선사...' 펴내



방송 프로듀서가 책을 냈다. 그것도 읽기 쉬운 수필이 아닌 역사와 한 인물에 대한 새로운 고증을 갈망하는 학술서적류의 책을.

김정학PD(대구방송·前 불교방송 프로듀서)는 <일연선사로 팔만대장경을 본다>(페이저원 권)에서 "일연스님이 그대대장경 판각의 주역임을 역설하고, 판각장소인 남해본사도감과 정림사의 분명한 유취지를 찾아야 한

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불교방송에서 방송했던 4부작 다큐멘터리 '역사기행-삼국유사의 현장을 찾아서'와 2부작 다큐멘터리 '일연스님과 대장경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남해본사도감과 팔만대장경, 그리고 일연스님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사도감과 정림사, 일연스님을 둘러싼 역사적 개연성을 포괄하고 있다.

열린마음 열린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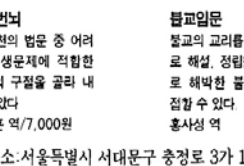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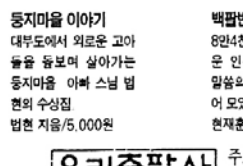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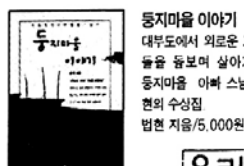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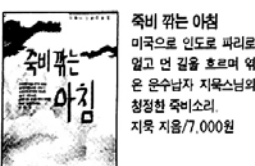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울한을 엮여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동자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겉돈을 때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